『더 느리게 춤추라』 류시화 옮김

第12回静岡韓国語スピーチ大会

暗誦部門\_指定原稿　テーマ1. 詩

（文字数ｰ372）

회전목마 타는 아이들을 바라본 적 있는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귀 기울인 적 있는가.

펄럭이며 날아가는 나비를 뒤따라간 적은,

저물어 가는 태양빛을 지켜본 적은.

속도를 늦추라.

너무 빨리 춤추지 말라.

시간은 짧고, 음악은 머지않아 끝날 테니.

하루하루를 바쁘게 뛰어다니는가.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고서도

대답조차 듣지 못할 만큼.

하루가 끝나 잠자리에 누워서도

앞으로 할 백 가지 일들이

머릿속을 달려가는가.

속도를 늦추라.

너무 빨리 춤추지 말라.

시간은 짧고, 음악은 머지않아 끝날 테니.

아이에게 말한 적 있는가,

내일로 미루자고.

그토록 바쁜 움직임 속에

아이의 슬픈 얼굴은 보지 못했는가.

어딘가에 이르기 위해 그토록 서둘러 달려갈 때

그곳으로 가는 즐거움의 절반을 놓치는 것이다.

걱정과 조바심으로 보낸 하루는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버려지는 선물과 같다.

삶은 달리기 경주가 아니다.

속도를 늦추고,

음악에 귀 기울이라.

노래가 끝나기 전에.

-데이비드 웨더포드-

『もっとゆっくり踊ればいいじゃないか』　韓国語訳 リュ・シファ

【参考】原稿テーマ1.詩和訳(非公式）

回転木馬に乗ってる子供たちを見守ったことはないかい

大地に降る雨音に、耳を傾けたことはないのかい

ひらひらと飛んでいく蝶を追いかけたことは

沈みゆく夕日を見つめたことは

ゆったりとした速度はどうだい

あまり急いで踊ったりなんかせずに

時間ははかなく、音楽もやがて終わってしまうから

毎日慌ただしく飛び回るなんて

自分が挨拶言葉をかけながら

返事すら聞く余裕もないほど

一日が終わって寝床に入ってからも

今後の山のような仕事のことが

頭の中を駆け巡ってるなんて

速度を落とせばいいじゃないか

あまり急いで踊ったりなんかせずに

時間ははかなく、音楽もやがて終わってしまうから

子供に話しかけたこともないのかい

そんなことは明日に回せばいいじゃないかと`

あんまり慌ただしく動き回るうちに

子供の悲しげな顔つきも目に入らなかったのかい

どこかに辿り着くためやたらと急いで走って行ったりすれば

そこへ向かう楽しみも台なしになってしまうよ

心配ばかりで焦って過ごす一日なんて

包装も開けずに捨てさってしまうプレゼントのようなものだよ

人生は徒競走なんかじゃないよ

速度を落として

音楽に耳を傾ければいいんだ

音楽が終わらないうちに

-デヴィッド・ウェザーフォード-